안녕하세요?^^

㈜혜민생활건강 에서 일 하고 있는 유은희 라고 합니다.

안성준 회장님께서 저희 제품을 드시고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선생님께 선물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혜민환 제품을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시면서 호전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 궁금해 하시거나 부작용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리고져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혜민환의 주 구성원은 한약재를 미생물 발효한 것 과 각종비타민 미네랄등이 풍부한 천연 자연재료들 그리고 에너지 증진에 좋은 식물들 등 54여종의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혈행개선 및 장 건강과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천연재료들이 많이 함유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의 70-80%를 소장에서 담당하고 있고 신진대사에도 소장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 역시 몸의 장기중 큰 비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혈액이 탁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 오는 것과 두번째는 영양불균형으로 오는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이 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올 바르지 못한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부족, 스트레스, 오염된 먹거리, 과식 폭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기인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몸의 구성체인 세포에게 영양소와 산소공급 그리고 **방어작**용(혈액응고, 식균작용, 면역작용등) **운반작용**(산소운반, 이산화탄소 운반, 영양분이나 노폐물운반, 호르몬, 혈구, 항체 운반 등), **조절작용**(체온조절, PH조절, 삼투압조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살아있는 생명체인 세포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체온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연력이 30-50%가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12.5%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적정의 체온유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체온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피부온도 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늘 배워 온 36.5도가 피부온도입니다.

2번째 온도는 심부온도 인데 이것은 장기들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심부온도는 37도를 유지시켜주어야 장기들이 제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있고 영양 불균형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몸이 차가운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차다는 것은 심부온도 역시 차다는 이야기지요 생명의 보존을 위해 우리 인체는 스스로를 컨트롤하여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 하는데 피부온도보다는 심부온도가 생명에 더 중요함을 인지하고 심부온도를 맞춰 주기위해 피부에 있는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부터 모공을 닫아 열과 수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심부온도를 유지시켜 생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공이 닫쳐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열)을 제공하면 심부온도의 적정온도보다 더 높아지므로 심부온도의 최적화인 37도를 맞추기 위해 인체는 닫혀있던 모공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쳐 열리지 못한 모공에 열이 쏠리면서 가려움증, 두드러기, 발진, 피부가 벌개지는 열 쏠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호전반응(개선되어지며 나타나는 반응)이라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10분에서 -2시간 사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혜민환을 드시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을 느끼실 수 있으며 혜민환을 드시면서 몸이 어느정도 개선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전현상이 하루 종일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거나, 사라지지않는 현상이 며칠씩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이는 혜민환이 본인의 몸과 맞지 않는 알러지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전현상은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사를 하시는 분, 코피를 쏟는 분, 예전에 다쳤거나 아팠던 곳이 더 아파오는 분, 변비가 더 심해지는 분 , 몸이 찌릿찌릿 져려오는 듯한 느낌, 편두통 등 여러가지 반응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독소배출작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용법은 식전20분 정도가 가장흡수가 빠르고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 2회 아침, 저녁 각 1봉씩 드시면 됩니다.

몸이 너무 허약하신 분들이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에게 맞게 양을 줄여서(감하여) 드시다가 차츰 늘려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그 질병의 근본인 원인을 치료하거나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상치료만 하시다 보면 그 증상약물로 인해 그에 해당하는 장기의 기능은 오히려 퇴화 되어지게 되며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까지 영향력을 받게 되어 한가지를 고치기 위해 여러가지가 희생되어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혜민환은 우리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한 .혈행개선과 영양소 보급의 균형을 잘 조화시킨 명품보약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민제품이 다 그렇지만 정말 심혈을 기우려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양심을 걸고 만든 제품입니다.

혈행개선과 영양보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혜민환의 복용을 통해 늘 몸과 마음 늘 건안 하시기를 두손 모읍니다.

명함을 동봉 하오니 드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0. 혜민환 주요 구성성분 설명서 1부

1. 리플렛 1부
2. 호전현상시 참고내용 1부